

23 광기술연구센터 소편

글 김경우 기자·그림 김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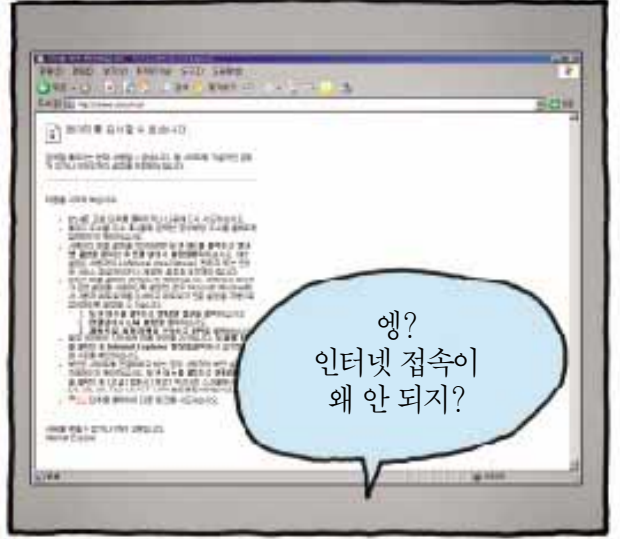


김준 일러스트레이터 겸 만화가입니다. '미디어 다음' '스포츠투세울' 'Paper' '영정프' 등의 다양한 매체에 작품을 연재하였습니다. 함께 취재를 하며 '키스트'의 생생한 모습을 전달해 주고 싶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.











다음 날 아침



됐다 안 됐다 하는 인터넷 때문에...



밤을 꼴딱 샀어. 도대체 인터넷이 왜 이런 거야...?



※우리나라에 많이 깔려 있는 인터넷 케이블망은 많은 사람들이 접속하면 접속할수록 속도가 느려지고 접속이 불안정해진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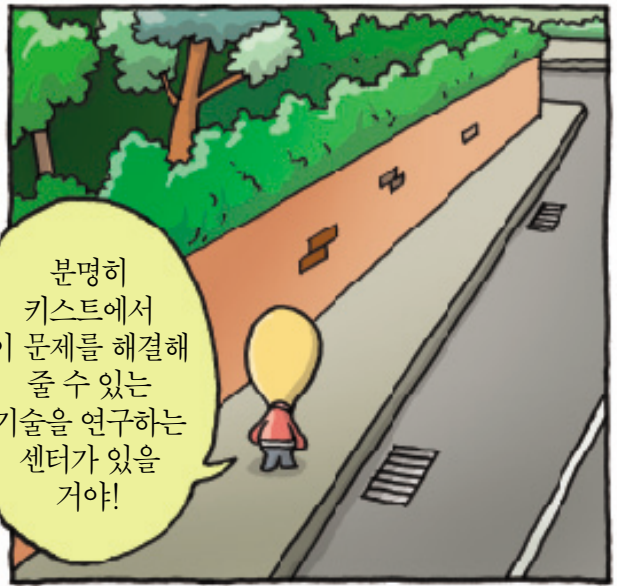
명색이 인터넷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이 이렇다면 도대체 다른 나라들은 어떻다는 거야?

내 집이 생기면 뭐 해? 인터넷도 제대로 못 하는데!





KIST



분명히  
키스트에서  
이 문제를 해결해  
줄 수 있는  
기술을 연구하는  
센터가 있을  
거야!



아이고, 힘들어라!  
좀 쉬었다 가자.



야, 우린 왜  
이렇게  
느릴까?

그러게 말이야.  
잠자리나  
메뚜기처럼 빠르면  
좋을 텐데.



에이~, 개들이 뭐가  
빨라? 개들보다 비교도  
안 되게 빠른 존재가  
있다고!

헉! 개들보다  
빠른 게 있어?



그럼!  
세상에서 가장 빠른 것은  
바로 '빛'이라고 그랬어.  
1초에 지구를 일곱 바퀴  
반이나 돈다나?

우와아아!!  
멋지다!





## ■21세기 정보화 사회를 이끌 '광기술'

20세기가 전기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'전자(電子)'의 시대라면 21세기는 '광자(光子)'의 시대라고 할 정도로 빛을 이용한 광기술은 미래 사회에 필수적입니다.

에너지, 환경, 산업, 군사 부분 등 광기술이 중요하게 쓰이지 않은 분야가 없지만 특히 완벽한 정보화 사회를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기술이지요.

빛의 속도는 1초에 30만km를 갈 정도로 엄청나게 빠릅니다. 그 빛의 성질을 이용하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속도뿐만 아니라 크기 면에서도 빛은 무척 효율적입니다.

광자의 무게는 전자의 25만 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지요. 이 성질을 이용하면 훨씬 빠른 정보 전달뿐만 아니라 각종 디지털 제품과 반도체의 초소형화에도 큰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.

광기술은 이미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연구 개발이 이루어져 현재 많은 분야에서 실용화를 거두고 있고 앞으로도 연구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질 미래 기술이랍니다.



